2008년 12월 15일 월 말씀

내년부터 해외지원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지원 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관리는 배우고 가야 합니다. 한국사람 식으로 가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따라가듯이 제일 처음에는 따라 옵니다. 개도 주인을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을 잘 따라가다가 주인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한국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인도하고 관리하는 것도 마음을 모르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 모르면 짐승이고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야 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번에 3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나야 뭐 금방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서 애들이 금방 다 뛰쳐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들이 종교생활을 못하게 딱 끌고 갔습니다. 그 남자들이 거의 다 회교인들 이었습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목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그런 것이 다 목회자 사명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요즘엔 교회들이 확 불어나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못합니다. 융프라우 같은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스키 타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 탑니다. 배워야 탑니다. 먼저 작은 데서 배워서 원리를 알고 타야 높은 곳에 올라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충분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하면 백성이 망합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20년 동안 배우고 와서 겨우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 되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연습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산에 있을 때 말씀 가지고 날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탤런트들이 배우듯이 계속 줄기차게 배워야 합니다. 계속 연습하다가 그대로 나와서 방송하면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지 시험을 봐서 뽑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면허 있어야 운전 하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뛰면서 기도해야 실체에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실천 안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복음 넣을 때 예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 존재의 세계는 근본 핵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핵을 알 때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에게 신앙의 근본을 넣어줘야 합니다. 분위기로 몰고 나가고 어떤 환경으로 몰고 방법론으로만 몰고 나가면 안 됩니다. 본질의 근본을 넣어줘야 본인들이 본인의 신앙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하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도록 만들어서 본인들이 해야지 괜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거의 가 다 인간책임입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책임입니다.

사회생활도 가르쳐줘서 사회 일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은 안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루 굶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틀 삼일 계속 굶으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빠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빠지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일도 가르쳐서 생활도 하게 만들고 이런 터전위에서 신앙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지 영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세상입니다.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꼭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뭐 어차피 기도해봤자 뭐 하냐 기도해도 답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힘든 사람들 잘 잡아주십시오. 나도 지금은 큰 일 하고 있지만 신앙 어릴 때 누가 안 잡아 줬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붙잡아 주듯이 계속 붙잡아 주고 가야 됩니다. 별이 빛날 때까지는 수 억년을 준비했다가 별이 빛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납니다. 사람도 빛이 나려면 수십 년 동안은 해야 됩니다. 수 십 년은 뒹굴어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목회를 잘 하면 그냥 놔둬서 계속 오래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00명에서 너무 작아지면 안 됩니다. 200명 300명 400명 계속 하라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쪼개지 말고 300명 400-500명씩 맡기려고 합니다. 서서히 대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지도자가 약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유능하면 300명 400명 계속 끌고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100만 명하는 것은 100%합니다. 100% 자신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별들도 그 자체에서 뭉쳐서는 큰 별이 안 됩니다. 다른 별과 딱 붙어야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